

‘광주 에이스 페어’ 아시아 대표 융복합콘텐츠 페스티벌로 진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5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 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에이스 페어(ACE Fair)는 ‘패러다임을 넘어, 광주로의 초대(Invitation from Gwangju: Beyond the Paradigm)’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시·비즈니스 상담을 넘어 20주년 기념 주제관, 확장현실(XR) 신기술 체험, 투자유치 상담회(meet-up), 청소년 인공지능(AI)콘텐츠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미래 콘텐츠 산업의 경향을 제시한다.

20주년 기념 주제관은 광주(Gwangju)를 동경화(모티브)한 ‘위대한 여정, 더 큰 미래(Great Journey, Greater Future)’를 주제로, 주제관은 지난 20년간 광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롤로그 ‘에이스페어(ACE Fair) 20주년, 광주 콘텐츠 산업의 발자취’를 시작으로 캐릭터·애니메이션, 방송·웹툰, 디지털 콘텐츠 3개 융합 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디지털 관에서는 체험형 확장현실(XR) 콘텐츠 기업 뉴작의 ‘XR-Runner’와 확장현실(XR) 슈팅 게임 등 최신 확장

28~31일 김대중센터서 개최... 400개 기업 507개 부스 운영
투자유치 및업·인공지능(AI) 경진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 선보
32개국 200여 해외바이어 참가... 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기대

현실(XR) 기술 체험이 가능해 관람객에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400개 기업(국내 368개, 해외 32개)이 507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광주지역 기업으로는 스튜디오버튼, 울트라그린, 핑고엔터테인먼트,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이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부스를 운영한다.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 CJ ENM, 딜라이트 등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SAMG엔터테인먼트도 ‘캐치! 티니핑’과 ‘메탈카봇’ 등의 인기 작품을 바탕으로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K)-콘텐츠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32개국에서 약 200명의 바이어, 국내에서는 콘텐츠 기업 카카오, KBS미디어, SBS미디어넷, MBC문화방송 등이 참여한다.

해외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지역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 및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광주 최대 규모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 광주’와 동시 개최돼 축제 분위기를 더 할 예정이다.

일러스트페어에서는 100만 관객을 돌파한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의 광주 출신 장성호 감독과 인기 웹툰 ‘월유메리미’의 마인드C 작가가 특별강연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2025 청소년 인공지능(AI) 콘텐츠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창의력을 겨루는 장으로, 지역 창의인재 발굴과 산업 진입 기반을 다진다.

이 밖에도 웹툰·일러스트 분야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라이브 드로잉, 코스프레 경연대회, 굿즈 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에이스 페어(ACE Fair)는 단순



한 전시회를 넘어 미래 기술과 시민 체험, 산업 융합을 선도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시켜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20년간의 값진 성과와 앞으로의 위대한 미래를 직접 경험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착한쿠폰’ 또 발행

고령자·거동불편 대상자 328명 지원... 복지 함께 살핀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28일까지 ‘장보기 주간’으로 지정하고 시장 내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착한쿠폰’을 발행한다.

서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거동 불편 대상자 328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착한쿠폰을 종이로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서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쿠폰 사용자들과 1대1로 연결해 원하는 물품을 간편하게 고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구는 매월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후원금으로 착한쿠폰을 발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관내 ‘착한가게’로 등록된 식당, 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3억5천만원 규모의 착한쿠폰을 발행해 주민 350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양동전통시장 착한가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양동전통시장에서 ‘광주1호 착한거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해 저소득층 72명에게 720만원 규모의 착한쿠폰을 발행했으며,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가위 특집’으로 620명을 선정해 6200만원 상당의 착한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민경제와 돌봄 복지를 함께 살피는 착한쿠폰 사업이 착한도시 서구의 따뜻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상생해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9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3일에 열려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운영

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9월 3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대회 전야제 장소인 금남로(전일빌딩 245~금남로 공원) 구간 중 금남로 2가(NH투자증권~금남빌딩)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다.

이번 행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했던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과 행사장에 비치

된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홍보에 중점을 뒀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 열리는 대회 전야제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고싸움놀이, 시립창극단 등 문화공연, 대회 성공 기원 퍼포먼스,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 악성 민원전화 4번째부터 ‘뚜·뚜·뚜’

구청 27개 민원부서·행정복지센터 자동녹취 도입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민원과 복지, 인·허가 분야 업무가 많은 민원봉사과와 건설과, 복지지원과, 교통지도과 등 구청 내 27개 부서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과 통화를 시작하면 내용을 자동 녹음하는 전수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통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장시간 통화로 업무를 방해하면 통화를 종료하는 방

식이다. 민원인이 이런 행위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돼 더 이상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폭언과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 또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녹음·녹화 기능이 있는 휴대용 보호장치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담당 부서의 진정 요청과 법령 저촉 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협행위가 지속되면 경

찰에 신고해 즉각 퇴거 조치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출입 제한 및 이의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 민원인의 위협행위 대처를 위해 비상 대응반도 운영한다.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법적 대응을 총괄하며, 민원봉사과와 총무과에서는 피해 지원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민원 부서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악성 민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상으로 연 2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특이 민원 모의훈련 및 비상 상황 출동체계도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임채일 기자

북구, ‘독서의 달’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9월 한 달간 5개 구립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특별 프로그램’ 열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독서의 달(9월)을 기념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준비된 독서의 달 특별 프로그램은 체험, 강연, 전시 등 총 3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중흥도서관에서는 ▲나만의 필사 노트 만들기 ▲책 도장 만들기 ▲나는 기다립니다! 원화 전시 등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압화 캘리그래피 책갈피 만들기 ▲주파수가 통하는

책과 음악 ▲‘낙엽 한 닢, 시 한 구절’ 전시 등 7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운암도서관은 ▲내 서가의 독서대 만들기 ▲업사이클 병뚜껑 키링 만들기 ▲문지나·황영미 작가 원화 전시 등 8개 프로그램을, 양산도서관은 ▲‘행운이 구르는 속도’의 저자 김성운 작가 강연 ▲우리 가족 힐링 테라피 ▲고전, 여전히 유용한 이야기’ 전시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도서관에서는 ▲‘생일엔 마라탕’의 저자 류미정 작가 강연 ▲바다우리 키링 만들기 ▲바스락 바스락 가을 책 소풍’ 전시 등 6개 프로그램이 열린다.

아울러 5개 구립도서관 모두 9월 중 일정 기간을 ‘연체 해방 주간’ 및 ‘도서 대출 두 배 주간’으로 정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연체에 따른 대출 정지를 해제하고 대출 권수를 최대 10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송현근 기자

